

도계, 유통비용 미국보다 우리나라 더 싸

— 미국 32%에 비해 우리나라 25% —

우리나라 육계 계열화업계의 95년도 위생 닭고기 생산비는 Kg당 2,391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1995년 한해동안 생산된 6천 3백 40만수에 대한 년 평균 자료를 분석한 실제 자료로 년간 생계 평균가격은 Kg당 1,200원에 평균도체수율 67%의 성적으로 생체중은 수당 1.46Kg에 달했다.

미국 육계 계열주체의 자료 생계 Kg당 469원(1U\$=800원 환산) 평균 도체율 75.8%, 출하 생체중 2.27Kg(5파운드)에 닭고기 생산비 Kg당 910원과 비교해 많은 차이가 난다.

한편 닭고기 생산비중 생닭과 도계 및 생체제비용(운송, 감량, 유통비용, 관리비)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도체원료비(생계비용) 74.9%, 도계 및 생체제비용 25.1%(Kg당 600원 소요)에 비해 미국은 각각 68%, 32%로 생닭 비율은 우리가 더 높고, 도계 생산 및 유통비용의 비율은 미국이 높았다.

육계 계열화업계는 앞으로 초

생추비용의 인하와 사료대의 절감, 출하체중의 증가 조정 등을 통해 육계 생산비의 절감 없이는 경쟁력 제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95년도 계열화 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도계 및 생체제비용에서의 발생비용이 닭고기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계열

주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

위생도계육 생산과 고품질의 브랜드화 된 닭고기 생산을 추구하는 육계계열화 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닭고기의 도계비용의 부가와 생계비용의 인하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현행 생닭가격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는 시세현황도 이제는 식품으로의 닭고기 가격(가능하면 무게별로)의 시세정보로 전환을 서둘러야 하겠다.

위생닭고기 생산 실천대회 개최

본회 회원사들은 최근 소비자 단체의 닭고기 안전성문제 제기와 정부의 위생계육 유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위생 닭고기 생산에 대한 실천 결의를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농축산물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과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이라 믿고 김홍국 회장의 선창으로 전회원

사 대표들이 ▲우수한 품질의 닭고기 생산 ▲우리 땅에서 생산된 닭고기가 세계제일이라는 궁지로 닭고기 산업에 종사한다. ▲과학적인 사육 및 도계시설의 현대화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제품만 유통 ▲사육에서부터 처리, 가공, 유통단계까지 위생적인 관리로 안전성있는 닭고기 공급 ▲닭고기 수급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정부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협조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단신

닭고기 안전성 관심 높아

소비자 단체와 KBS, MBC 등 방송사의 축산물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되고 있다. 넌초부터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식육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면서 우유, 돈지, 간장 등에 이어 식육에 대한 위생적이고 안전성 있는 생산에 모든 종사자들의 관심을唤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위생적인 식육생산에 대한 지도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국산 도계기계 품질인증(EM마크) 획득

도계설비 국산화에 노력해온 (주)태진기계(대표 김선우)가 지난 2월 24일로 도계 자동기계에 품질인증(EM마크)을 획득하였

다. EM마크는 통상산업부에서 지원해 중소기업청, 국립기술 품질원에서 주관해 기계설치 후 문제점 발생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시장이 좁은 국내의 열악한 환경에서 97%이상의 국산화로 동차는 도계기계로 대수뿐 아니라 해외수출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 EM마크를 받은 품목은 도체이양기, 향문 절단기, 개복기, 내장 적출기, 목기도 및 소나방 제거기, 허파흡입기, 기슴절개기, 중량선별기 등 8개 품목이다.

식품의약청 내년발족

정부는 4월중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동본부는 내년에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전담기구인 식품의약품청(미국의 FDA 성격) 발족을 앞두고 안전관리체계 일원화와 관계법령 준비 등을 위해 복지부의 식품, 의약, 약국과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의 기능을 통합 흡수해 식품, 의약·첨가물의 안전평가와 위해요소 판정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하기구로는 서울과 부산 등 5대 광역시에 '지방 식품의약품청'을 설치해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에 대한 현장감시와 수입식품 검

사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외전염병 연구센터 개관

수의과학 연구소(소장 이재진)는 국제교역 증가로 각종 해외전염병 위험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차단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전염병 연구센터를 개관해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해외산дов들의 수입시 동물검역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마니커 플라자 개점

닭요리 전문점 마니커 플라자가 지난 2월 29일 동두천시 허봉암동에 개점하였다. 미원 마니커 공장과 이웃해 넓은 주차장과 휴게소 기능을 겸비한 동점포는 주변의 신북온천과 한탄강 유원지 등과 함께 동두천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계탕, 닭불고기, 후라이드 치킨, 너겟 등 30~40대 자가용·기죽과 주변 군인기지 젊은층과 노년, 어린학생 들을 대상으로 닭고기의 모든 제품을 서비스 하게 된다. 154석의 깨끗한 매장과 세련된 서비스 50여대의 주차시설 등 닭고기 소비에 귀감이 될 것이다.

도계수수료 덤팡, 비위생 계육 양산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이 지난 92년 8월 발표한 '적정 도계수수료 산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위탁도계업의 도계수수료가 246.3원으로 조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도계수수료를 140원에서 160원을 받아 과당경쟁으로 도계처리의 위생상태가 염려되고 있다.

위탁도계장의 도계비 인하는 비용을 맞추기 위해 비위생적인 내장적출, 절단부위 조절, 냉각조의 처리(비위생적인 칠러) 뿐만 아니라 운반중 냉각처리 미비 등의 문제로 유통중 오염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최근 소비자단체의 안전성문제 시비와 정부의 위생닭고기 생산의 지에 따라 관계당국은 시료채취, 도계위생점검 등 실태파악 중이며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도계수수료의 적정화로 위생육 생산에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닭고기 제품의 브랜드화로 국제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KID는 앞의 조사에서 노무비 76원, 제경비 77원, 일반관리비 62원에 회사이운 31.3원을 가산해 적정도계 수수료를 246.3원

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유통비 및 제관리비용을 제외한 순수 도계비용은 94년도에 222.6원(27.82 센트, 1U\$ = 800원 환산)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도계육생산비의 24.4%에 달했다. 미국 도계육의 경우 Kg생산비 중 생계비가 68%, 도계비용 24.4% 유통비 3.9%, 회사운영비 3.7%에 달한다.

미, 농산물 수출증가, 아시아 덕분

미 농무부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아시아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팔목할만한 증가를 보여 96 회계년도 예상수출액을 지난 해보다 39억 달러 늘어난 5백 80억 달러로 늘려 잡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 및 동남아시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95년에 한·일·대만 3국이 절반을 넘게 수입했으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했다.

육류의 경우도 일, 한, 대만 3국의 수입량이 미 전체 수출의 65%를 차지 했으며 한국은 일본,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미국산 육류를 수입했다. 미국의 통상관계자는 아시아 국가들의

닭갈비(鶏肉)

鶏肉(계육·닭의 갈비)은 먹을 것은 없지만 버리기도 아까운 것이다. 즉 큰 소용은 안되나 버리기 아까운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말은 후한서 楊修傳(양수전)에 전한다.

유비가 한중에서 조조군대를 맞아 일전을 치르며 전투가 장기화 되면서 유비군대는 제갈량의 용의주군으로 잘 정비된 반면, 조조군은 고전을 면치못하며 조조가 혼자말로 '鶏肋(鶏肋)'하고 중얼거린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부하 양수가 조조의 말을 알아듣고 철수준비를 서둘렀다.

결국 조조는 한중을 계륵에 비유해 아쉬워 하며 군대 철수를 결정했다.

닭고기와 인삼

닭고기는 적색고기에 비해 단백질이 많고 칼로리, 지방 콜레스테롤이 낮은 백색육으로 그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한 필

수 아미노산 성분과 좋은 지방성분으로 소화흡수가 잘된다.

한편 인삼은 당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성분과 약리작용이 탁월한 사포닌 20여종이 들어있어 간장보호기능과 위를 틀튼하게 한다. 닭고기와 인삼을 같이 요리하면 닭 특유의 냄새가 없어지며 맛도 담백해진다. 또한 아미노산의 상호보완으로 완벽한 영양형이 된다. 그래서 기운이 없어지거나 허약한 경우 닭과 인삼을 함께 요리해 먹으면 강장, 강정 효과가 있다. 물론 환경기 보약보다는 인삼 넣은 닭고기 한사발이 몸에 좋은 보신이 된다.

영육, 닭가공품 생산위주

영육농산은 97년 닭고기 시장개방과 식품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닭고기 가공제품 위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한다. 동사는 지난해 영육판매(대표 장화상)설립 이후 냉동 가공품 개발에 적극나서 현재 15% 수준의 가공품 비중을 97년까지 50% 수준으로 올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용인에 5월 원공예정으로 월 325톤 규모의 닭고기 가공공장을 총 70억원 정도 들여 설비

수입개방이 본격화 되면서 미국의 아시아 수출이 급격한 신장세로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이어 미상무부도 무역대표부 같은 형태의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중앙).

브라질 닭고기 수출감소, 내수증가

브라질은 95년도에 닭고기를 전년보다 60만톤이 증가한 4백만톤을 생산했다. 그런데도 국내의 빠른 수요증가로 통닭 및 부분육의 1995년도 수출량은 전년보다 7만5천톤이 줄었다(94년도 48만톤 수출). 이는 월간 4만톤 수출하던 전년도에 비해 95년도 매월 3만4천톤을 수출했으며, 부분육수출은 전년도와 95년도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통닭은 감소했다(부분육 가격이 통닭보다 상대적으로 싸다).

브라질은 94년7월 새로운 화폐가치 도입으로 화폐가치가 35% 상승했다. 이로인해 브라질은 그동안 수출해 오던 중동지역의 통닭, 유럽, 일본, 아시아지역에 수출하던 부분육이 상대적으로 가격에서 열세에 놓여 수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국내의 소비증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이다. 앞으로 FAST FOOD 및 간식시장에 닭고기 제품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연식품, 유망중소기업 선정

대연식품이 3월 12일 경기도로 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동사는 지난 10여년간 지역사회 기여도와 기업의 발전 성장기여성이 높아 신용평가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돼 이번에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것이다. 이로서 동사는 앞으로 경영정보 및 지도, 인력수급, 자금지원, 기술전수 등에 각종 혜택을 볼예정된다.

CP그룹 파키스탄 투자에 관심

파키스탄 정부는 가금산업의 외국자본 투자에 관심이 높고, 정부차원에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태국 CP그룹은 파키스탄의 가금 및 사료산업 투자에 큰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세계 곡물 재고량 20년이래 최저수준

- 곡물시세 폭등으로 계속 곡물가격 최고치 경신 -

금년은 UN이 정한 빈곤퇴치의 해이다. 그럼에도 세계의 곡물수급에서 비축량이 20년 이래 최저수준을 경신하고 있으며 곡물시세는 연일 최고가격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곡물수급은 인도, 중국의 곡물 수요증가가 국제 수급에 큰 변수로 작용하며 우루과이아운드 타결이후 각국의 수입수요가 느는 현상을 보여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 전세계 곡물비축량은 1987년도에 4억6천5백만톤으로 최고를 보이다 93년도에는 3억5천1백만톤을 금년도는 2억3천1백만톤으로 추정되며, 옥수수 비축량은 2월말 5천6백만톤으로 년간 세계소비량 5억3백만톤의 10.5% 수준이다. 이에따라 3월 인도분 선물거래 가격도 부셸당 U\$ 3.87로 지난해 U\$ 2.36에 비해 64%가 상승했으며 이는 15년 만의 최고가격이다. 밀, 콩도 연일 최고가격을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미국, 브라질, 알제리의 고온건조와 북유럽 지역의 일기불순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큰원인으로 꼽히고, 아시아 지역의 사료곡물

및 기호식품용 곡물수입의 증가, 20년내 최저의 곡물비축량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사태를 맞아 전세계의 곡물 증산노력이 이루어지면 한편에서는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EU는 휴경지 비율을 12%에서 10%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수출곡물에 대한 수출세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 경작지 중 7.5%에 달하는 휴경지를 경작지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도 세계 3대 쌀수출국인 베트남은 북쪽 국경지대를 통한 쌀 중국 수출금지를 단행하고 있다.

미국 타이슨사 금년 닭생산 감축

-NBC, 사료곡물의 식부제한 프로그램 수정 정부에 강력히 요청-

세계최대의 닭고기 생산업체인 미국의 타이슨푸드사는 최근 사료원료가격의 앙등에 따라 배합사료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지난 3월초 금년도 생산량을 7%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타이슨사가 버티기 힘들정도라면 다른업체들은 뺐

하다고 전한다.

한편 미국의 적색육 및 가금육 공급자들은 농림부장관에게 사료원료 부족을 예견하여 앞으로 고기 생산량을 감축시킬것을 통보하고 있다. 미국브로일러협회(NBC)는 식부제한 프로그램(CRP프로그램)의 경작지 조기 허용을 농림성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 돼지, 가금의 생산자들은 약20%의 사료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종축과 종계의 조기도태를 서두르고 있다. 가금생산자와 가공업자들은 사료원료의 공급이 원활해 질 때까지 그들의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모든 노력을 격렬하게 진행해 나갈예정이며, NBC는 사료곡물의 부족, 가격인상, 소비자불만, 소비자가격 변동 등에 직면해 산업의 리더로서 정부에 강력히 해결을 요구하고 업계 스스로 감축 등 노력을 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NBC의 이런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철저한 차단방역 발전하는 계육산업

3월 닭고기 우수성 광고

·MBC-AM
09:30~ 여성시대 2부

에 이 비 안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 '94, '95 2년 연속 1위!
에이비안은 육계농장 계열주체에 더 많은 이익을 드립니다.

(주)증원농장

영업부 TEL (0417) 567-7792, FAX (0417) 554-0771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 하림
HALIM & CO., LTD.